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수출, 7월 누계 '역대 최대'

농수산물식품 수출 6억7천627만 달러, 전년비 10% 증가

김 등 수출품목 다양화...해외시장 공략 강화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식물검역검사대 모습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제공

전남광주지역 올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7월까지 6억 7천6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증가하며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7월 누계 수출액은 2023년 4억 4천161만 달러에서 2024년 5억 5천219만 달러, 2025년 6억 1천487만 달러, 올해 6월 7천627만 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3.1% 늘었다.

품목별로는 수산식품이 3억 6천854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4.5%를 차지했고, 농산식품 2억 4천773만 달러(36.6%), 축산식품 5천581만 달러(8.3%), 임산식품 418만 달러(0.6%) 순이었다.

전남광주 대표 수출품목인 김 수출액은 2억 8천960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의 42.8%를 차지했다. 이어 담배류 5천986만 달러, 주류 4천422만 달러, 음료 2천776만 달러, 미역 2천171만 달러,

전복 2천104만 달러, 분유 1천752만 달러, 쌀 1천748만 달러, 커피조제품 1천719만 달러, 유자차 883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김·미역·전복 등 수산식품과 함께 주류·음료·분유·쌀·커피조제품·유자차 등 농산식품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면서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 2천946만 달러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으며, 미국 1억 1천935만 달러(17.6%), 중국 1억 1천308만 달러(16.7%), 대만 4천358만 달러(6.4%)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목포시가 1억 2천74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북구 1억 615만 달러, 나주시 7천775만 달러, 고흥군 7천401만 달러, 신안군 6천418만 달러, 완도군 4천42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활시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

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 규격인증·수출보험료·수출 기반 구축 바우처 지원과 아마존 등 온라인 수출 플랫폼 및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을 통해 수출기업과 농어가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현군 전남광주통합특활시 국제협력관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3년 만에 50% 이상 성장했다"며 "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품목과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판로를 확대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기업과 농어가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 HMG에너지&수소사업 본부장에 홍은희 부사장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에너지 사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수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舊 British Petroleum) 출신의 에너지 사업 전문가 홍은희 부사장을 신임 HMG에너지&수

소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험과 전략을 갖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에너지 및 수소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사업화 추진 역량을 한층 높일 계

획이다. 신임 홍은희 부사장은 시장 기회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온 글로벌 에너지 사업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홍은희 부사장은 P&G Korea, 한국수출입은행을 거쳐 18년간 bp에서 근무하며 석유, LNG, 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해 왔다. 특히 홍 부사장은 사업

의 수익성과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에너지·수소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획·운영해 왔다.

앙골라 LNG 프로젝트와 같이 자원 개발부터 장기 공급·운송에 이르는 사업의 구조화 및 계약 체결을 주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험을 쌓아 시장 기회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bp 기술 총괄 조직장의 비

서실장(Chief of Staff)으로 발탁됐으며, 이후 2022년 신설된 수소·암모니아 사업 개발 조직을 맡았다.

2023년부터는 bp의 글로벌 수소 사업 개발 조직을 총괄하면서 주요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대응은 물론, 고객 수요에 기반한 사업 모델 발굴과 사업 개발을 폭넓게 수행하며 글로벌 수소 사업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현대차그룹은 홍은희 부사장의 실행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래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생태계 확산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은희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부터 청정수소 생산·충전 인프라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성과를 쌓아왔다"며 "글로벌 에너지·수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들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지주식김



쌀귀리



딸기



여주



녹차



토마토



전통장류



토하젓



왕칠



연근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GANGJIN-GUN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